

교회마다 기독교학교를 세웁시다

6 김승욱(발행인)

최근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교육기회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계급격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스포츠 잘 갖추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선행학습을 하거나 아이를 잡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불안합니다. 이런 것 외에 조가유학 보내려고 하니 어린 자녀와 헤어져야 하고 가정이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고려하지만, 부실교육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부모들은 공교육의 원마 문화, 폭력, 교실붕괴 등을 생각하면 한숨이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합니다.

지도 유학과 연구년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교육전문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세 아이를 미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봤고, 국내에서도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경험해봤습니다. 사립과 공립학교, 심지어 홈스쿨링까지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홈스쿨러들을 위한 홈스쿨링 교재와 기독교교육 교재를 공할 목적으로 세운 DCITY 출판사의 권성운 대표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다원주의나 진화론의 세례를 받고, 불신 친구들의 파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 자녀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법서를 또 판에 키워서 눈이 옮겨 심듯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시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키워서 세상에 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기독교학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최근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물론 공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진정으로 성경적인 학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춘천 V-SCHOOL의 차성도 교수는 이것을 대안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원래의 교육, 즉 원안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교육기회 때문에 소득격차가 계급격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더욱 헌신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에 교회가 투자하는 것은 자녀에게 기독교 정체성을 심어주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더욱 바람직한 사회 건설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며보았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D. 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현재 경제포도회(학비),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회의 운영위원장, 발행인 겸 편집장.